

천년고찰에 담겨진 한국문화의 속살

천년 고찰 이야기

최종결 지음

지난해 우리나라 7개 사찰이 세계유산으로 선정됐다. 해남 대흥사, 순천 선암사를 비롯해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가 해당한다. 불교의 개방성과 승가공동체의 신앙, 수행, 일상의 중심지이자 승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위에 언급한 사찰은 산지형을 대표하는 곳으로, 유서가 깊고 불자와 일반 순례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초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얕은 개울물은 큰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우리 민족들의 삶과 함께 해온 사찰의 여말함을 이르는 말 같기도 하다.

우리 문화와 역사가 깃든 산사에 대한 순례를 담은 책이 나왔다. 언론인 최종결 씨가 펴낸 '천년 고찰 이야기'는 옛 이야기 속에 담긴 한국 문화의 속살을 드러낸

다.

저자는 어느 날 알고 지내던 스님의 권유로 수행 삼아 고찰 순례를 시작했다. 당시 언론계를 떠나 있었지만 명산대찰 이야기를 어느 사찰 사보에 게재하게 됐고, 이후 다시 언론계에 돌아왔다.

책에는 수행가풍이 살아 있는 청정도량을 중심으로 한 기행이 오롯이 담겨 있다. 사찰에 얽힌 일화와 설화는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구수하고 흥미롭다. 기행과 이야기는 여행의 생동감과 스토리의 역동성을 전해준다.

해남 대흥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었던 서산대사의 일화와 연관이 있다. 입적 앞둔 서산대사는 제자들에게 해남 두륜산 대둔사에 자신의 의발을 전하라고 한다. 제자들은 스승이 왜 남도 끝자락 외진 곳에 가사와 발우를 전하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때 서산대사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두륜산 대둔사는 '만세토록 허물어지지 않을 땅'이며 '종통(宗通)이 돌아갈 곳'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명을 받들어 묘향산 보현사와 안심사 등에 부도를 세워 대사의 사리를 봉안했다. 그리고 가사와 발우를 대둔사에 모셨으며, 이후 대둔사는 지금의 대흥사로 바뀐 이후에도 400년이 넘는 시간동안 대사의 법맥이 이어져온다. 큰 깨달음을 얻은 13명의 대종사와 13명의 대강사를 배출한 선교 양종의 대도량으로 자리를 잡았다.

김계 금산사는 미륵신앙의 성지로 불린



서산대사의 법맥이 면면히 흐르는 천년고찰 대흥사.

다. 어린 시절 이곳으로 출가한 진표 율사는 후일 금산사를 중건한 대스님이다. 그와 관련된 일화는 천년 불사의 불을 지핀 공덕으로 전해온다.

어린 시절 사냥을 좋아했던 진표 율사는 어느 날 개구리를 잡아 버들가지에 꿰어 불에 담가놓았다. 깜빡 잊고 집으로 돌아간 그의 귀에 오레 전 잡은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부랴부랴 그곳에 간 그는 버들가지에 꿰인 채 울고 있는 개구리를 보았다. "내가 어찌 해를 남길 정도로 개구리를 고통받게 했다 말인가?" 진표 율사는 크게

탄식을 했고 이후 깨달음을 얻은 후 금산사로 출가했다. 17년간 참회의 고행이 이어졌고 마침내 미륵보살과 지장보살로부터 간자와 계법을 받기에 이른다.

이밖에도 책에는 백제 불교 도래지 불갑사를 비롯해 신라인의 불국을 염원한 불국사, 하얀 양의 깨달음이 서린 백양사, 국사 16명을 배출한 승보종찰 송국사, 수도 도량 태고 종림으로 일컫는 선암사, 와불에서 서린 설화가 인상적인 운주사 등도 소개돼 있다.

〈다우·2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지구와 생명의 역사는 처음이지? = 지구 탄생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역사를 명쾌하고 흥미롭게 풀이하며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답을 제시한다. 지구 탄생에서 인류 등장까지 총 1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비롯해 대분기 후기 대멸종과 트라이아스기 말 대멸종, 인류 문명을 이룩한 호모 사피엔스 등을 다룬다. 〈북멘토·1만6000원〉



▲사치와 고요 = '이상한 정열'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기준영의 세 번째 소설 집으로 2017년 황순원문학상 후보작·2018년 현대문학상 후보작이었던 '마켓'과 올해 현대문학상 후보작이었던 '완전한 하루' 등 아홉 편을 묶었다. 각 소설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삶의 일부를 잃은 자들이 뜻밖의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젠더=현대의 성차별적 현실을 뿌리

로 거슬러 올라가 조명한 역사서이자 '경제적 인간'의 탄생에 관한 인류학적 고찰이다.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달리 저자는 '성'이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은 처음부터 '젠더'로 태어나서 지닌다고 말한다. 또 원래 남자와 여자는 불명등한 게 아니라 비대칭적인 뿐이며, '젠더'라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 존재들

이었다고 주장하며 어떻게 젠더가 서로를 도우며 삶의 터전을 일구어갔는지를 기술한다. 〈사월의책·1만7000원〉

▲영웅의 여정=조지프 캠벨은 전 세계

의 신화를 탐구하며 각각의 이야기들에서 '태어남-부름-모험-역경-귀환'으로 요약되는 공통의 서사 구조를 발견했고, '영웅의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소개했다. 조지프 캠벨의 주요 강연과 인터뷰를 추려 편집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옮긴 '영웅의 여정'이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전한다. 〈갈라파고스·2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마법식탁=식탁 나무는 친구인 너구리를 잃고 상실감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거지는 자책하는 식탁 나무를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어 준다. 그러자 식탁 나무는 희망과 사랑의 빛을 만들어 내는 나무로 변하고 자신보다 못한 생명을 돌보고, 남몰래 사랑을 베푸는 거지의 모습에 위로를 받는다. 책은 아름다나무의 변화와 감정을 통해 개인이 가진 상처와 슬픔을 아물게 하는 힘과 위로를 전한다. 〈뜨인돌어린이·1만1000원〉



▲말이 씨가 되는 덩더꿍 마을=초등학교이 꼭 알아야 할 속담을 알려주는 우리말 그림책이다. 덩더꿍 마을 사람들은 '까마귀가 아저씨 하겠다'며 서로 놀리지 못해 안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밥'이라면서 좋은 일 생긴 이웃을 보면 배죽겨린다. 또 '말하는 것을 개방귀로 알아'라며 남의 말은 무시한다. 날마다 싸우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속담 64개가 절묘하게 담겼다. 〈천개의바람·1만2000원〉



▲우리 집은 언덕 위에 있어=팍팍이는 언덕 위 토끼 집 찾기에 번번이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길을 나선다. 팍팍이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원동력은 타고난 긍정적 성격도 한몫하지만, 길에서 만난 거북이, 고래, 두더지, 새 등 다양한 동물 친구들의 도움도 크다. 길지 팍팍이가 친구 토끼의 집을 찾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읽는 재미가 있다. 〈시공주니어·1만2000원〉



책상 위 연필, 그 존재감을 알리다

연필

헨리 페트로스키 지음·홍성림 옮김

지금 이 글에서 소개하는 책은 '팔로미노 블랙윙' 푸른 빛깔 연필로 몇군데 줄을 치며 읽고 있다. '내 인생의 연필'로 꼽는 '블랙윙' 시리즈는 소설가 존 스타인벡이나 음악가 퀸시 존스가 소설과 악보를 그릴 때 썼던 연필로 알려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드럽게 밀리며 글씨가 쓰여질 땀 기분이 좋아지고 다양한 시리즈와 색깔의 유혹은 수직육도 자극한다. 자기에게 딱 맞는 필기구를 만나는 건 소중한 즐거움 중 하나다.



작은 우주다'라고 선언한다. 저자는 세계적인 공학자로 '포크는 왜 네 칼퀴를 달게 되었나', '디자인이 만든 세상' 등 일상 속 사물들의 역사와 공학적 의미, 디자인의 유래를 치밀하게 추적한 책을 꾸준히 펴냈다.

'연필의 조상을 찾아서', '뾰족한 연필에 대한 갈망' 등 모두 22장으로 구성된 책은 연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명된

것인지, 누가 흑연을 연필심에 쓸 생각을 했는지, 왜 연필 자루는 원통형이 아닌 육각형인지 등 연필의 탄생에서부터 기술적 발전 과정, 연필을 둘러싼 산업적 배경, 연필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 공학적 발전 과정까지 모든 것을 다룬 '연필백과사전'이다.

저자에 따르면 "연필은 뾰족하게 끄적거리는 이들의 도구이자, 사색과 창작의 발원지 동시에 어린이들의 장난감이며 즉흥성과 미완성의 상징이다, 또 사상이나 기획자, 문서 기안자, 건축가, 공학자들이 매일 쓰는 도구"이기도 하다. 예술가들은 '나는 연필이다'라고 말한 프랑수아즈 툴루즈 로트렉처럼 오랜 세월 동안 연필을 그들 작업의 필수 도구로 아껴 일체감을 느끼기도 했고, 공학자와 건축가들은 연필을 통해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냈다.

책에서는 필요에 의해 슬한 변화를 거친 연필의 제조법, 뾰족한 연필심에 대한 갈망으로 등장한 연필깎이 기계, 연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흑연에 대한 이야기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또 '연필의 대명사'로 불리는 독일의 파버사와 슈테틀러사 등 유럽 대륙과 미국 연필 업체의 치열한 경쟁은 세계대전 등 역사적인 사건과 어우러지면서 흥미로운 문화사를 그려낸다.

'월든'의 작가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가업이었던 연필 제조에 나선 이야기나, 나무자루 연필에 도전한 샤프펜슬에 대한 일화, 존 스타인벡 등 연필 숭배자와 마니아들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아마도 이 책을 완독하고 나면 책상 위에 누구의 책상엔든 한 두자루쯤 놓여 있는 연필이 전혀 다른 존재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출간 후 절판됐던 책을 20여년전 번역을 맡았던 홍성림 번역가가 다시 재번역해 내놓았다. 〈서해문집·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